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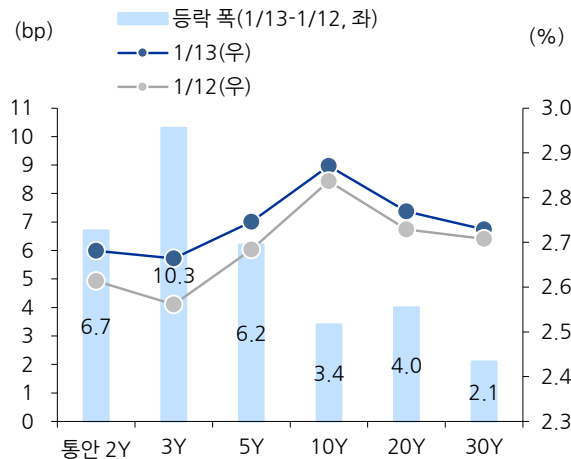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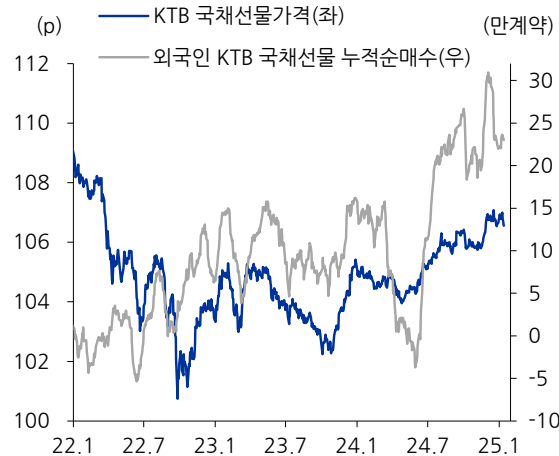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/13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664%	10.3	14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71%	3.4	5.4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0.7	27.6	29.3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55	-27.0	-23.0
	10년 국채 선물(KTB)	116.89	-51.0	-56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82%	0.3	10.6
	미국채 10년물	4.781%	2.1	15.0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39.9	38.2	35.6
	독일국채 10년물	2.590%	2.0	14.5
	호주국채 10년물	4.636%	9.2	16.6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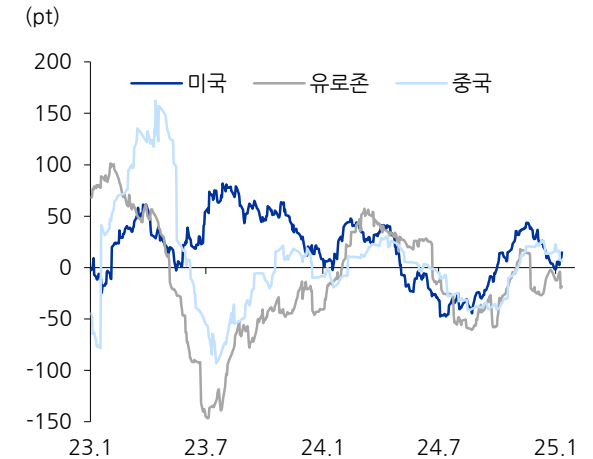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전일 미 고용 호조 및 기대인플레이 급등으로 연준 인하 기대 위축된 영향 소화. 국고채 3년 입찰 양호했으나 약세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함
- 한은 1월 인하 기대, 여전히 우세하지만 근래 동결 전망도 급부상. 이에 그간 금리 상단을 제한해주던 저가 매수세가 장 막판 약화된 모습
- 야당, 20조원을 추경 기본 출발선으로 두자는 기존 입장에 더해 2~3단계까지 편성할 필요성 언급

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미 고용 서프라이즈 여파 지속. 여기에 미국이 러시아 산 원유에 강한 제재 부여하자 WTI가 3% 가량 급등한 점도 금리 상방 압력 가중. CPI 발표 앞둔 부담도 지속
- 대신 레벨 부담 속 추가 약세는 제한. 10년 금리는 4.8% 상회시 빈번히 후퇴. 30년 금리는 4.992%까지 오른 뒤 반락
- 금일 미 12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및 PPI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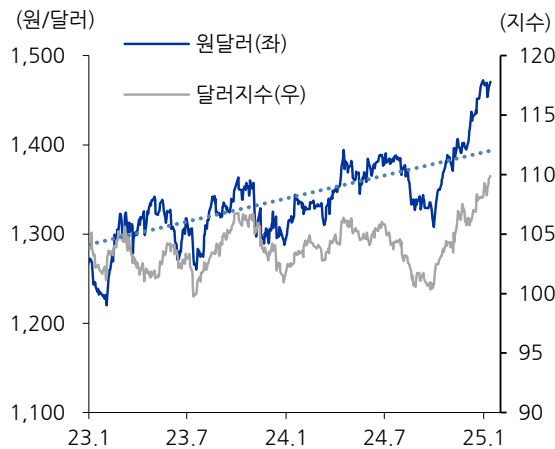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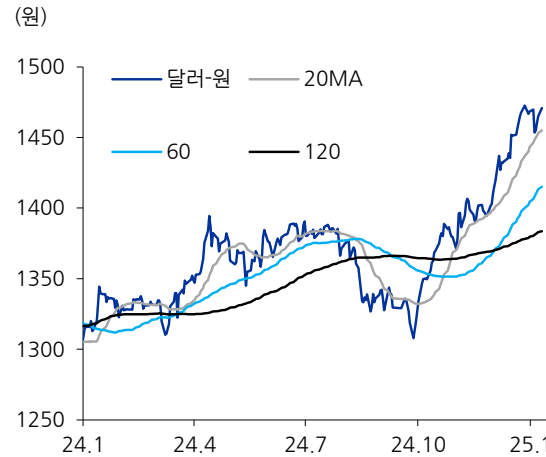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1/13일	1D	1W	YTD
원/달러	1,470.80	0.4%	0.1%	-0.1%
달러지수	109.86	0.2%	1.5%	1.3%
달러/유로	1.022	-0.3%	-1.7%	-1.3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35	-0.2%	0.1%	0.2%
엔/달러	157.65	-0.1%	0.0%	0.4%
달러/파운드	1.218	-0.3%	-2.7%	-2.7%
헤알/달러	6.10	-0.2%	-0.3%	-1.4%
WTI 근월물(\$)	78.82	2.9%	7.2%	9.9%
상품 금 현물(\$)	2,662.27	-1.1%	1.0%	1.4%
구리 3개월물(\$)	9,094.00	0.0%	1.0%	3.7%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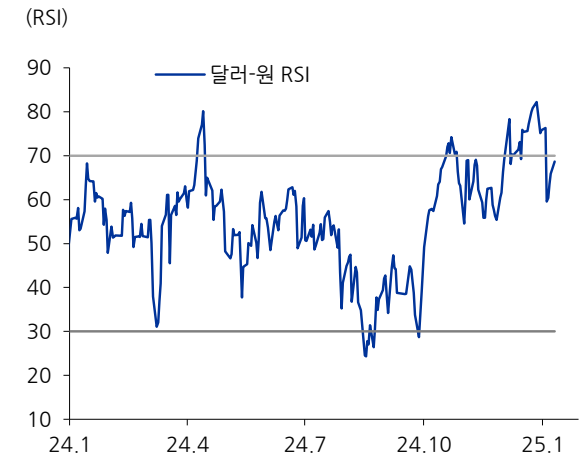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+5.80원 상승한 1,470.80원 마감. 종가 기준 2주 만에 1,470원대 진입. 야간거래에서는 1,467.50원 마감.
- 지난 주말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여파로 달러가 급등하면서 달러-원은 +8.20원 상승 출발.
- 장 초반 급등 이후 네고 물량 출회와 위안화 강세에 추가 상승은 제한됨. 그러나 1,470원 선에서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장중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았음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고용 여파가 계속되면서 추가 강세.
- 지난 주말 미국 고용 여파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끝났거나, 혹은 인상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달러 상승세 지속. 장 중 한 때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10 선을 상회. 그러나 뉴욕장 마감 이후 반락 중.
- 영국 파운드화는 재정에 대한 우려로 5일 째 약세를 이어갔으나, 스타머 총리가 재정규칙을 지키겠다는 발언 이후 반등.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님.
- WTI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배럴 당 78달러 대로 급등, 지난해 여름 이후 최고치 기록.